

# 배우 변요한 “왜군 연기했지만 거북선 보니 숙연해졌어요”

영화 ‘한산:용의 출현’서 왜장 와키자카 역  
90kg 까지 증량...일본어 연기에 공들여

“맛있던데요.”  
배우 변요한(36)에게 영화 ‘한산:용의 출현’에서 왜군 장수 ‘와키자카’를 연기한 자기 모습을 어떻게 봤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며 웃었다. 그는 화면에서의 모습이 자신이 표현하려 했던 와키자카의 외양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자랑했다. 변요한이 이런 말을 한 건 와키자카가 되기 위해 외모에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 그는 심어 킬로그램 증량해 몸무게를 90kg에 육박하게끔 늘렸다.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올려 묶었다. 얼굴에서는 호랑이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길 바라며 어느 때보다 뜨겁게 움직였다. 26일 변요한을 만났다. 그는 “그렇게 와키자카의 모습이 되고나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며 “그 자신감이 걸음걸이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호리호리하고 재빠른 느낌의 와키자카를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제작한 갑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맞더라고요. 옷이 축 처지면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제한 증량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태양인 체질이라 살이 잘 찌요. 그렇게 살을 찌우다 보니 어느 순간 갑옷이 딱 맞게 됐습니다.”  
변요한이 맡은 와키자카는 왜의 젊은 장수. 그는 1592년 6월 용인전투에서 수천의 병사로 조선군 수만을 기습해 패퇴시킨 자신감으로 7월에는 이순신 등이 지키고 있는 전라도 지역 앞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다. 이곳은 복진하는 왜군을 지원하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했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에 와키자카와 왜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전격적으로 공격하지만 대패하고 퇴각한다. 이 이야기가 ‘한산:용의 출현’에 담겨 있다.  
“와키자카를 단순히 빌런으로 묘사하고 싶지 않았습니. 말 그대로 왜군 장수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사람 같을 것 같았어요. 사람에게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 그런 와키자카의 감정을 충실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배우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대사다. 여기에 변요한의 와키자카 연기에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일본어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그는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강사 2명과 이번 영화를 사실상 함께 준비했다. 촬영장에서도, 밥을 먹어도 갈 때도 변요한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이들과 자리를 함께했다고 한다. 다만 그의 목표는 원어민과 같은 발음과 억양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일본어 대사를 외우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중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뒀다고 했다. 그렇게 그가 선택한 건 정통 사극 스타일의 일본어였다. 변요한은 “일본어 선생님과 긴 논의 끝에 사극 톤의 일본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며 “낯설더라도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일본에 수백번 여행을 가도 완벽한 일본어는 구사할 수 없잖아

요. 어쩔 수 없이 어설피단 말이지. 저는 일본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려는 것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알고 열심히 일본어를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는 말에 감정이 담기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변요한이 연기한 건 와키자카이지만, 이 영화에 출연한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그는 김한민 감독에게 ‘한산:용의 출현’ 시나리오를 건넬받은 뒤, 살다보니까 잊고 지냈던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에 그는 자긍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출연하기로 했다. 그는 세트장에서 실물 크기 거북선 모형에 뒀을 때를 떠올리며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 왜군 장수를 연기하던 중이었는데도 거북선 보니까 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순신, 거북선, 학익진 책으로만 봤던 게 영상화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가 벅찼어요. 거북선 보고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한산:용의 출현’은 2014년 1761만명이 본 ‘명량’의 후속작이다.  
‘명량’에도 와키자카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선 배우 조진웅이 와키자카를 맡았다. 흥행에 대한 부담, 선배 연기가 했던 역할을 이어받았다는 압박도 있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변요한은 그런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캐릭터가 저한테 주어지면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 ‘빌보드 200’ K팝 판이 됐다...있지·에스파 등

있지 ‘체크메이트’ 8위·제이홉 ‘잭 인 더 박스’ 17위 첫 진입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이 K팝 판이 됐다. 최신 ‘빌보드 200’ 차트에 단골 손님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 총 7장의 K팝 앨범의 음반이 이 차트에 진입했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그룹 ‘있지(ITZY)’의 미니 5집 ‘체크메이트(CHECKMATE)’와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솔로 정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가 30일 자 ‘빌보드200’에 신규 진입했다.  
앞서 빌보드가 예고 기사로 밝힌 것처럼 ‘있지’의 ‘체크메이트’는 ‘빌보드 200’에 8위로 들어왔다. 블랙핑크(2위), 트와이스(3위), 에스파(3위)에 이어 K팝 걸그룹 네 번째로 ‘톱10’ 진입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빌보드 200’에서 여섯 번 정상에 오른 제이홉의 ‘잭 인 더 박스’는 역시 트위터 등을 통해 예고된 것처럼 17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이홉은 한국 가수 솔로 중에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200’ 40위에 두 장의 앨범을 올린 가수가 됐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자신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가 ‘빌보드 200’에서 38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발매 즉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는 이번 주 37위다. 지난 주 19위보다 18계단 떨어졌으나 6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주 3위로 첫 진입한 ‘에스파’의 ‘걸스’는 이번 주 67위다. 2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미니 4집 ‘미니스드2 : 서스테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28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지난 5월28일 자 ‘빌보드 200’에 자체 최고순위

인 4위로 진입한 이래 10주 연속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발매된 K팝 그룹의 앨범 가운데 ‘빌보드 200’에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을 이어갔다.  
K팝 솔로 가수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200’의 ‘톱10’(7위)에 진입했던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첫 솔로 미니 앨범 ‘아이엠 나연(IM NAYEON)’은 이번 주에 135위를 차지하며 4주 연속 차트인했다.  
세븐틴의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은 지난 주와 같은 자리인 187위를 차지했다. 세븐틴은 해당 차트에 7주 연속 진입하며 자체 기록을 또 경신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등 전통적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등을 합산해 인기를 매긴다. 대중성보다 특정 팬덤이 두터울수록 순위가 높게 나온다. 북미 시장에서 마니아가 구축된 K팝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다.  
K팝 그룹의 앨범은 빌보드 내 세부차트에서도 꾸준히 호성적을 내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프루프’는 ‘월드 앨범’ 4위, ‘톱 커런트 앨범’ 16위, ‘톱 앨범 세일즈’ 19위에 올랐다. 제이홉의 ‘잭 인 더 박스’는 ‘월드 앨범’ 2위, ‘랩 앨범’ 4위,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에서 각각 5위를 차지했다.  
있지의 ‘체크메이트’는 ‘월드 앨범’ 1위, ‘톱 앨범 세일즈’ 2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2위 등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스드2 : 서스테이스 차일드’도 ‘월드 앨범’ 6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7위, ‘톱 앨범 세일즈’ 7위 등 여러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파의 ‘걸스’ 역시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등에 2주 연속 진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은 데뷔곡 ‘피어리스(FEARLESS)’로 빌보드 내 세부 차트인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32위를 차지하며 12주 연속 차트인했다.

## 사망한 김기덕 신작이 베네치아영화제에... “김기덕 기리는 의미”

79회 베네치아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김기덕 감독의 새 영화가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사무국은 26일 제79회 공식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열어 경쟁·비경쟁 부문 등 초청작을 발표했다. 김 감독의 새 영화로 소개된 ‘Call Of God’은 비경쟁 극영화 부문(OUT OF COMPETITION - Fiction)에 이름을 올렸다. ‘Call of God’은 우리 말로 ‘신의 부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한국영화로 분류되지 않고, 에스토니아·키르기스스탄·라트비아 영화로 분류됐다. 이들 나라는 김 감독이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사건에 휘말린 뒤 도피 생활을 한 곳들이다.  
다만 ‘Call of God’이 어떤 영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황상 김 감독이 이들 나라를 떠

돌면서 촬영한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측은 ‘Call of God’을 소개하면서 “김 감독이 이 영화를 에스토니아에서 촬영한 뒤 편집을 시작하려던 차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토니아 감독이 이 영화를 완성해 베네치아영화제에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영화를 완성한 에스토니아 감독이 김 감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베네치아영화제는 김 감독 영화엔 자체 세르가지나라는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배우와 키르기스스탄 배우 아블라이 마라토프가 출연했다고 명시했다. 영화제 측은 “김 감독은 황금사자상을 받은 감독”이라며 “그를 기리기 위해 이번 작품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베네치아·베를린에서 모두 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이기도 하다.  
한편 김 감독은 2018년 배우와 스태프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후 출국했다. 그는 유럽의 구 소련권 국가를 떠돌며 생활을 하다가 2020년 12월11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사망했다. 올해 베네치아영화제는 다음 달 31일 개막한다.

## 이순신 학익진 99개국에 펼친다... ‘한산:용의 출현’ 해외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미국·일본·프랑스

미국·일본·프랑스·중국 등 판매 등에 판매되며 해외에서도 관객을 만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7일 “‘한산:용의 출현’이 미국·일본·프랑스·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99개 나라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오는 29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다음 달 4일, 대만에선 같은 달 19일 개봉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영화 개봉일을

조만간 확정을 예정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조선 수군과 왜 수군의 전투를 그린다. 배우 박해일이 ‘이순신’을 연기했고, 변요한이 왜군 장수 ‘와키자카’를 맡았다. 이밖에 김성규·안성기·손현주·김항기·육택연 등이 출연했다. 이 작품은 2014년 ‘명량’으로 1761만 관객을 끌어모은 김한민 감독의 새 영화다.

## 배우 조현철, 매니지먼트mmm과 계약

김태리·안재홍 소속사

배우 조현철(36)이 김태리와 한솔밥을 먹는 다. 매니지먼트mmm은 조현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이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현철은 래퍼 매드클라운(37·조동원) 동생

이다. 2010년 단편영화 ‘최추추만’을 연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영화 ‘마스터’(감독 조의석·2016) ‘말모이’(감독 엄유나·2019) ‘이웃사촌’(감독 이환경·2020)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아르곤’(2017) ‘호텔 델루나’(2019) ‘구경이’(2021) 등에서도 활약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로 제 58회 백상예술대



상 TV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았다. mmm에는 김태리를 비롯해 안재홍, 전여빈, 최수인, 최유리, 홍경이 소속돼 있다.